

### 고봉산과 심학산이 다투었던 옛날이야기

## 고양·파주지역 전래동화

고양시에는 오래된 역사와 산, 마을이 있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예전부터 고양사람들은 고봉산을 태미산이라 불렀고 파주사람들은 심학산을 수막산 또는 심악산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아주 오래전 두 산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서로 다투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한 옛날이야기를 소개해 본다.

글. 정동일(고양소식 편집위원) 일러스트. 이은영



### 좋은 자리를 두고 다툰 고봉산과 심학산

아득한 옛날, 고양과 파주에 처음 산이 생길 때였다고 한다. 하늘에서 고봉산과 심학산이 지금의 고봉산을 서로 좋은 자리로 보고 다투면서 내려왔는데 덩치와 키가 조금 큰 고봉산이 심학산을 한강 방향으로 밀어내고 지금의 고봉산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두 산이 다투어 생긴 말이 '심통난 심학산, 고집불통 고봉산'이다. 처음부터 다투기 시작한 두 산은 이후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고봉산이 있는 곳은 내륙에 있어 겨울에 덜 춥고 심학산이 있는 곳은 한강과 가까워 겨울에 춥고 자주 홍수가 일어나 고봉산이 좋은 자리였다는 것이다.

### 고봉산의 실수로 화가 난 심학산의 돌맹이 공격

두 산의 사이가 좋지 못했던 어느 날, 고봉산이 북한산, 백운대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밤새 술을 마신 고봉산은 갈증을 느껴 목을 내밀어 정발산 넘어 한강물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다음날 고봉산 하류에 위치한 심학산 장월평천에 물이 넘쳐나고 고약한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심학산 아래의 고양 송포, 파주 교하 주민들은 가축과 짐을 높은 곳으로 옮기느라 난리가 났다. 자신의 소변 때문에 온 마을에 큰 소동이 난 줄도 모르는 고봉산은 코를 골며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된 고봉산은 머리를 굽적이며 크게 미안해했다. 큰 피해를 본 심학산은 주변에 있는 바위를 이용하여 고봉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공격을 받은 고봉산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많은 바위 공격을 받았다.



### 고봉산 밑에는 고 씨가 살고, 심학산 밑에는 심 씨가 살고

계속되는 바위 공격에 고봉산이 죽을 지경이 되자 백운대, 북한산 등은 이를 보며 매우 안타까워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그러다 멀리서 두 산 사이에 예쁘게 생긴 산이 있는 것을 보고 심학산에게 소개해 주기로 하였다. 우선 심학산의 북쪽에 있는 오두산을 소개해 주자 심학산은 화를 풀고 서로 사귀기로 했고 고봉산에게는 정발산을 보내 상처를 치료해 주기로 하였다. 그 결과 고봉산과 심학산은 다투지 않고 정발산, 오두산과 함께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투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심학산 아래에는 심 씨를, 고봉산 밑에는 고 씨를 살게 했다. 심학산과 고봉산 사이에 두 산의 후손들을 살게 한 이후에는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잘 살았다고 한다.

### 고봉산에는 누리길이, 심학산에는 돌레길이

해발 208.6m의 고봉산에는 고봉누리길이 만들어져 있다. 안곡습지공원에서 출발하여 고봉산만 둘러볼 수 있고 옆에 있는 황룡산 까지도 걸을 수 있다. 약수터, 습지, 사찰, 바위, 숲길, 전설이 있는 고봉누리길은 고양시 일산지역의 대표적인 누리길이 되고 있다. 해발 194m의 심학산은 심악산, 수막산이라 불리는 파주의 명산으로 약 7km의 돌레길이 만들어져 있다. 약천사의 약수와 대불, 정상인 전망대, 숲길, 오솔길과 흙길이 있어 파주를 비롯한 고양, 서울까지 알려진 명소가 되고 있다.